

펜티엄 PC 신제품 출시

뉴텍컴퓨터

뉴텍컴퓨터(대표 장 현)는 지난해말 출시한 펜티엄PC 「와이드스카시」가 자사 전체 매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호조를 보임에 따라 후속 제품으로 「와이드스카시 네트」 6개 기종을 개발, 자사 전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터넷 환경을 겨냥해 개발한 「와이드스카시네트」는 인터넷 와 윈도 95 환경에서 빠른 처리 속도가 장점인데 15대의 주번기기는 직접 제어하는 초고속 와이드스카시 컨트롤러를 탑재하고 7, 200rpm, 2.25GB급 HDD, 2, 800bps급 팩스모뎀을 장착했다.

또 6배속 CD롬드라이브와 16비트 스테레오사운드를 지원하며 자동응답(TMS)·음성사서함(MDS)·스피커폰·무선호출 기능을 넣어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강했다.

대룡정밀과 필리핀에 PCB 합작생산 라인 구축

대덕전자

대덕전자(대표 김정식)가 위성

방송수신기(SVR)등 통신장비 업체인 대룡정밀과 51대 49의 비율로 800만 달러를 공동 투자, 필리핀에 전격 진출한다.

대덕전자는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전자업계의 해외생산 가속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대룡정밀과 합작, (주)대덕필리핀(DDPI)을 설립하기로 하고 2월 7일 정식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사의 이번 합작조건은 대덕이 전체 지분의 51% 상당을 출자, 경영권을 갖고 대룡은 마닐라 근교 카비테(Cavite)공단 수출자유지역내 기존 필리핀법인(대룡정밀필리핀)의 일부 부지(18,000여평)·건물(1만평)·PCB제조설비 등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대덕은 이에 따라 필리핀 법인에 현 대덕산업 종합기획실 이상민 전무를 내정하고 대덕전자 소속 과장급 엔지니어 5명을 파견, 기존 대룡의 PCB생산라인 조 기정상화에 함께 신규 시설투자에 박차를 가해 올 상반기내 단면 PCB 월 5만장, 양면 및 다층기판(MLB) 월 2만장 등 월 7만장의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덕은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PCB를 필리핀 내수 및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외 가전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향후 국내 생산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안산공장의 양면 등 범용 PCB 생산라인을 단

계적으로 이전, 필리핀공장을 해외 중추생산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국제전화사업 참여

대룡정밀

위성방송수신기·CATV컨버터 등 통신기기 전문업체인 대룡정밀(대표 이 훈)이 국제전화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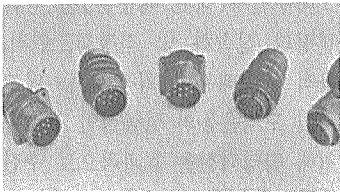
대룡정밀은 정보통신부가 상반기 중으로 허가할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 국제전화 부문에 지원키로 하고 컨소시엄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초 무선호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무선호출시장이 더이상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제전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룡정밀은 국제전화사업 추진을 위해 3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사업준비팀인 국제정보통신사업본부 구성했으며 중견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 중소 정보통신엔지니어링업체, CATV사업자 등 40여개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MS 서클러 코넥터 사업 강화

대신전자정밀



대신전자정밀(대표 김영기)은 올해 MS(Military Standard) 서클러 커넥션(사진) 등 고부가제품을 중심으로한 영업강화를 통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6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대신전자정밀은 지난해 「A형」 MS서클러커넥터를 개발, 양산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B형」을 추가로 개발해 시리즈를 보완하고 로봇·FA 등 자동화기기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자동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제품개발 및 자동화에 20억 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광버튼 VCR 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주요 기능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는

「광버튼 VCR」 2개 모델(모델명 DV F 81·F51)을 개발 시판했다.

6헤드짜리 고급형인 이 광버튼 VCR는 전원을 켜면 전위너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테이프를 재생시키면 재생버튼에 연두색 불이 켜지는 등 사용기능에 따라 해당버튼에 불이 들어와 작동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또 재생·정지·빨리감기·되감기 등 4개 핵심버튼을 한데 모아 사용이 편리하며 디자인은 밝고 산뜻한 느낌을 준다.

이 제품은 케이블TV 방송을 손쉽게 예약녹화할 수 있고 손상된 화질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화질보상기능, 선명한 화질을 재현하는 슈퍼클린 회로를 내장했다.

이밖에 현장감있는 음질 및 스테레오 방송을 즐길 수 있는 하이파이 전용 음성헤드를 갖춰 2개국어 방송을 녹화할 수 있고 외국어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캡션기능을 갖췄다.

모스크바에 해외 본사

설립

대우전자

대우전자는 CIS(독립국가연합)를 제2 주력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모스크바에 현지 본사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대우는 이로써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본사를 설립한데 이어 두번째 해외 본사를 운영

하게 됐으며 단계적으로 미국 일본 동남아 등에도 본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는 CIS에 오는 2000년까지 5억달러를 들여 마케팅 거점을 대폭 확충,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려 가전분야 최대 공급업체로 떠오르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대우전자 CIS본사는 지역내 5개의 생산·판매법인과 4개의 지사를 통합 관리하면서 CIS 실정에 맞는 상품 기획 등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 고객서비스는 물론 인사관리 등 일반업무까지 총괄케 된다. CIS 본사는 이에 따라 이미 전시장을 운영중인 모스크나와 페테르부르크를 포함, 올해안에 10개 권역별 중심도시에 상설전시 판매장을 세우는 한편 2000년까지는 40개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대우 관계자는 밝혔다. 또 울초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 지사를 세운데 이어 △올 연말까지 15개의 판매법인과 지사를 추가로 설립하고 △우즈베크 카자흐 등 인근 구소련권 공화국내 종합가전공장의 생산품목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요격주 전일근무제」

실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 복리후생을 확대하기 위해 3월부터 전(全)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요격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

대우전자 토요격주 전일근무제는 대근대휴제(代勤代休制)를 바탕으로 기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루 8시간으로 통합하여 격주로 1주는 8시간 근무하는 대신 다음 1주는 휴무하는 것으로, 총 근무시간은 종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으나 근무일수는 연간 290일에서 265일로 줄어들고, 휴무일수는 연간 75일에서 100일로 25일이 증가하게 된다.

대우전자는 새롭게 바뀐 근무시간에 따라 생산현장과 업무부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히하고, 공장의 생산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담긴 「대우전자 WORK CALRNDAR」를 작성·배포할 방침이다.

대우전자는 토요일 근무로 발생되는 일반 관리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업무능률이 오르지 않는 半日근무에 따른 심리적인 누수현상을 막고 입부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임직원들이 자기개발과 취미활동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휴식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재충전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업무시간의 효율성은 물론 개인별 업무 자질의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6정기주주총회 개최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2월 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96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대우전자 '95년도 매출액은 내수 1조 490억원, 2조 770억원 등 총 3조 1,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5% 늘어나 국내외 가전 시장이 정체 또는 소폭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전사업으로만 매년 25% 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572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수출은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백색가전부문이 60% 이상 급증하는 호조에 힘입어 약 37%가 늘어났으며, 내수시장에서는 2차레의 가격인하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칼라TV가 30%, 냉장고가 50% 이상 증가해 전체적으로 7% 성장을 기록했다.

대우전자는 올해 매출계획을 28% 늘어난 4조원으로 책정했으며, 해외공장 신증설 및 판매법인, 연구소 등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신제품 및 첨단핵심기술 개발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및 R&D 부문에 지난해의 약 2배인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추진위원회」

발족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정책결정의 신속화 및 적정화, 인적, 물적 자원배분의 최적화 등 탱크주의 도약운동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경영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영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우전자 「경영혁신추진위원회」는 팀제와 연계하여 팀단위별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 및 과정을 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업무흐름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전산 INFRA를 구축하는 등 5대 부문(고객만족부문, 생산공급부문, 미래창조부문, 인력자원재창조부문, 지원부문 등)별로 정보화 기업의 토대를 구축, 신정보 기업을 이루려는 21세기 대우전의 비전 달성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대우전자 「경영혁신추진위원회」는 양재열 사장을 위원장으로, 각 사업담당임원과 전산부담당

을 위한 대우정보(주) 대표이사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산하기관으로는 경영혁신추진간사회와 사업부 경영혁신팀을 두어 분기 1회의 정기회의 및 비정기회의, 임원회의를 통해 각 사업부 문별 경영혁신추진 실적을 보고, 평가하게 된다.

'95년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1위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은 최근 (제)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밝힌 '95년도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업체중 총 980건으로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을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94년대비 70.1% 신장된 것으로 대우통신이 그동안 교환기 및 통신기기 등의 정보통신사업, 컴퓨터 및 시스템사업 등의 사업 다각화 및 타사와 차별화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개발한 성과이다.

등록 프로그램은 주로 정보통신 관련 데이터통신과 유틸리티관련 시스템 프로그램들로서 대우통신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상품화하는 데도 앞장서 이미 지난 '93년 국내 처음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한바다'를 상품화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유아교육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꼭꼭 숨

어라'를 개발, 판매중에 있다.

또한 대우통신은 국내 최초로 전사업장에 구축한 종합특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연구원의 특허검색 및 특허출원을 대폭 활성화 하였으며, 특히 마인드를 제고하고 R&D 성과의 지적재산권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연구원을 초급, 중급, 책임자, 경영자 등으로 구분하여 지적재산권 교육도 연중 실시중에 있다.

인터넷 서비스사업

참여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위해 시스템 사업본부내에 인터넷추진팀을 구성하고 대우그룹 전 계열사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91년도부터 인터넷을 가입하여 자체 연구망 및 사내 종합정보망을 구축, 인터넷을 활용해 온 대우통신은 이번 인터넷 사업추진은 위해 우선 1단계로 대우그룹 R&D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주)대우,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한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갔다.

인터넷 메인 운영센터는 대우통신 종합연구소내에 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센터내 ATM-LAN망 및 1.544Mbps급

T1 백본(backbone)을 구축한 상태이다. 현재 그룹 및 각 계열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웹 서버를 구축하고 있으며, 뉴스 서비스, 화일전송 서비스, E-Mail 서비스등의 기본 서비스는 물론 국내외의 도서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LIBS 서비스, 사원들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자체 BBS (Bullentine Board System) 서비스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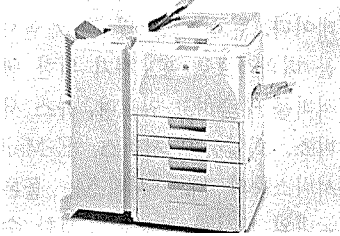
한편, 대우통신은 올 상반기까지 T1급 전국망을 확보하여 대우그룹 전사업장, 협력사, 해외연구소 및 전세계 지점망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용 DB 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부가통신서비스 등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계열사들의 웹 서버를 완벽하게 구축해주는 SI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젼 방지기능 보급형

고속복사기 시판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이 최근 국내 최초로 젼 사전방지 기능을 갖추고도 동급 모델보다 30% 저렴한 가격을 실현한 고성능 초저가 그린 복사기(모델명 : DCP-7060)의 시판에 들어감에 따라 고속복사기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라이카 대리점 인수를 계기로 복사기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대우통신이 미놀타와 기술제휴로 이번에 시판에 들어간 이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고 판독장치, 엔진, 업선부를 각각 제어하는 3개의 CPU를 탑재함으로써 고장율을 감소시키는 한편 에러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복사용지의 급지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사기가 이를 스스로 감지하여 재급지를 시도함으로써 잦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 관련기능을 피해서 다른 기능을 가동시켜 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고장회피 기능 등의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대우복사기 DCP-7060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선보이지 않은 선형 토너 공급 방식(MTLS: Micro Toning Line Supply; 기존의 측면 토너공급 방식이 아니라 선형(線形) 롤러에 의해 토너가 뿌려지는 방식으로 토너를 고르게 뿌릴 수 있어 화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과, 8자형 현상제 혼합방식, 화상을 최상의 상태로 보정하는 자동화질보정 기능 등의 기능을 채용함으로써 화질을 혁신적으로 높였다.

유아교육용 CDE타이틀 ‘꼭꼭 숨어라’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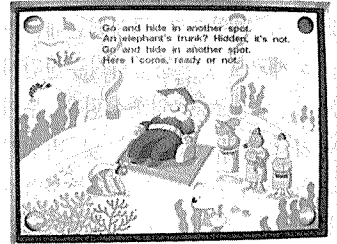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류기범)은 이화여대 아동연구소, 미국 UCLA대학, LA교육국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유아교육용 CD타이틀 「꼭꼭 숨어라」를 시판한다.

「꼭꼭 숨어라」는 주인공 어린이가 바둑이, 삼살이와 함께 이야기 별, 가면의 별, 탐정의 별, 게임의 별 등을 탐험하여 다양한 학습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논리력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림의 도움없이 스스로 문제를 헤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이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래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글을 익힐 수 있는 이야기 별에서는 짧고 쉬운 문장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글을 배울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숨박꼭질 놀이를 스스로 구성하고 함으로써 흥미를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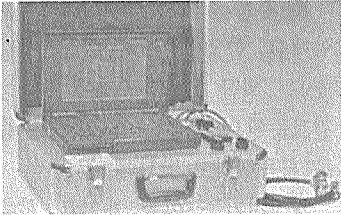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탐정의 별에서는 전화, 팩스, 편지, 방문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현장의 단서를 통해 해당 동물을 찾는 한편 그림 속의 노트북 PC에 담겨진 각종 동물의 정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논리적 판단력과 관찰력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배울 수 있다.

케이블 절연 측정기 개발

대한전선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도 고압전력케이블의 절연상태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식 활선하 케이블절연 측정장치(Automatic Portable On-Line Cable Monitor)를 개발, 국립공업기술원으로부터 EM(Excellent Machine·Mechanism·Material)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이 국산화한 이 장치는 산업현장의 생산설비나 전철 등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고압전력케이



블의 이상유무를 전기가 흐르는 상태(활선상태)에서 절연상태를 측정하는 장치로 정전상태에서 측정하는 기존 메가시뮬방법에 비해 무정전상태에서도 고압배전선로 절연층·방식층의 절연저항을 휴대형 컴퓨터로 측정, 고압케이블의 유지·보수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휴대형 컴퓨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측정데이터를 기억하고 케이블의 수명·교체시기 등을 자동으로 판독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전체 소프트웨어의 한글화를 실현, 사용자가 손쉽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OA전용 PC발표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는 사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기능을 차별화한 OA전용 PC 「사이버넉스」 5개 모델을 발표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판되는 「사이버넉스」는 펜티엄 75MHz부터 150MHz에 이르는 CPU를 기반으로 16MB EDO(Extended Data

Output) RAM과 1.6GB부터 최대 2GB에 이르는 대용량 HDD를 채택하고 있다.

또 한글윈도우95가 기본으로 내장됐으며 1만 4,400bps 팩스모뎀, 16비트 스테레오사운드카드, 4배속이나 6배속 CD롬 드라이브를 장착해 일반사무실에서도 인터넷과 멀티미디어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부품사업 집중 육성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이형도)는 사업구조 고도화를 겨냥, 차세대 멀티미디어의 핵심부품인 각종 광부품 분야에 신규 진출키 위해 총 5백억원을 들여 오는 2000년까지 세계적인 광부품업체로 도약한다는 종합 육성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전기는 현재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적색 레이저다이오드·표면광 레이저다이오드 모듈·발광 다이오드(LED)·레이저스캐너 유닛·감광드럼 등의 개발 및 조기양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특히, 그룹차원에서 「월드 베스트 품목」으로 선정한 디지털 비디오디스크(DVD)용 부품을 우선 출시키로 했다.

삼성전기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DVD픽업의 광원인 적색 레이저다이오드를 상반기내 개발완료, 샘플 출하

함은 물론 이달부터 고밀도 CD·바코드 리더·레이저 포인트 등에 사용되는 제품을 연간 60만개 규모로 양산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전광판 및 리모컨에 탑재되는 LED를 이달부터 월 2천만개씩 생산하고 휴대폰을 비롯한 이동통신기기용 칩(SMD) 타입 LED는 하반기부터 양산할 예정이며 청색 LED 등 고휘도 제품도 연차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패키지 없는 반도체

개발

삼성전자

기존 제품보다 부피는 작으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패키지 없는 반도체」가 등장, 칩단세트의 경박 단소화가 한층 가속화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기존 패키징을 끝낸 왕성칩과 맞먹는 수준의 신뢰성을 베어(Bare)칩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논 굿 다이(Known Good Die)」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해 1M 및 4M 고속 S램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 굿 다이란 웨이퍼 혹은 칩 상태로 공정을 마무리한 일종의 베어칩으로 기존 패키지를 씌운 완성품과 비교해 품질 및 신뢰성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저

(低)전력에 신호처리가 빠르고 특히 부피가 작아 세트의 고집적화·소형화에 유리해 주로 고성능 세트에 채용되는 멀티 칩 모듈(MCM)을 꾸미는 핵심 반도체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자체 개발한 논 굿다이는 세트업체들이 자사제품 특성에 맞게 저렴한 리드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고 조립 및 테스트도 기존 반도체 패키지 공정과 유사해 수요업체들의 원가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또 이 제품이 현재 인공 위성·비행기·미사일 등 군사용과 핸드폰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5천만달러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2000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4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V제품 차별화 신모델 200여종 출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제품고급화 및 차별화로 AV시장공략에 적극 나선다.

삼성전자는 올해 AV 시장을 겨냥해 위성방송 수신 광폭 TV와 S-VHS방식의 VCR, CD체인저 채용 미니컴포넌트 등 모두 20여개의 AV 새상품을 올 상반

기 안에 집중적으로 출시해 시장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회사는 오는 3월 중순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을 돌며 대리점사장과 영어사원을 상대로 신상품을 선보이는 제품설명회를 선보이는 제품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AV시장에서 입지강화를 위해 이들 새상품 출시를 계기로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 및 고급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회사는 이달에 출시할 위성방송수신기능을 내장한 고아폭 TV 1개 모델을 비롯해 고선명 TV(HDTV)용 캐소드 및 입체음향시스템을 채용한 명품TV, 각종 학습기능을 채용한 VCR 및 광폭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S-VHS VCR드를 잇따라 출시해 고급 AV제품의 이미지를 다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오디오 신상품에 수신감도가 뛰어난 튜너와 로직데크를 채용,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를 피하기로 했는데 제품별로는 모두 3개 모델을 선보일 미니컴포넌트에는 CD체인저와 입체음향기능을 채용했고 헤드폰카세트는 자동선국 기능과 학습기능을 강화했다.

ISO 9002 인증 획득

쌍신전기

RF부품 및 NTC서미스터 전문업체인 한국쌍신전기(대표 장광호)는 최근 조치원공장이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ISO9002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쌍신전기는 이를 계기로 향후 수출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됐음은 물론 연말까지는 100 PPM인증, 환경관련 인증 취득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 회사는 이번 ISO인증과 아울러 오는 4월 중국 북경 현지법인의 가동을 기점으로, 중국공장은 고부가 고주파 및 파인세라믹 부품 공장으로서 주력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 73년 콘덴서를 시작으로 부품사업에 뛰어든 이 회사는 80년대 LC필터·딜레이라인 생산에 이어 최근에는 듀플렉서필터·유전체 공진기(DR)·전압 제어 발진기(VCO) 등 고주파 부품류와 NTC서미스터·센서 등 파인세라믹 관련 부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다.

미국 포트로닉스와 합작

아남반도체 기술

아남반도체기술(대표 김 무)은 포토마스크사업 강화를 위해 최근 세계적인 포토마스크 업체인 포트로닉스와 합작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합작계약은 아남반도체 기술이 포토마스크 사업부문을 독

립시켜 지난해말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자회사 피케이(대표 정수홍)사의 지분 50.1%를 미 포트로닉스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외영업력과 기술력을 갖춘 선진업체와의 계약으로 아남측은 하이엔드 메모리용 제품품질을 보다 신속히 제고시킬 수 있음은 물론, 일본 및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이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트로닉스도 한국이 메모리 선두주자라는 점을 감안, 단기간의 집중투자를 통해 천안 2공단의 피케이(주) 공장을 첨단기술을 보유한 포토마스크 생산기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케이사는 이에 따라 D램은 물론 수출시장을 겨냥한 ASIC제품용 포토마스크사업을 보다 강화해 올해 2천만 달러, 97년 3,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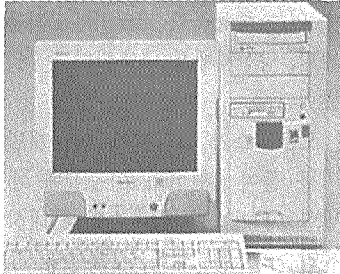
166MHz 펜티엄 PC

첫선

LG전자

LG전자(대표구자홍)가 펜티엄 166MHz급 초고속 멀티미디어PC를 초저가인 230만원대에 전격 출시한다.

LG전자는 국내 처음으로 166MHz의 펜티엄프로세서를 장착한



고성능 멀티PC 「심포니타워」(모델명 GT53H1666C)를 시판한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시판하는 「심포니타워」는 펜티엄 166MHz의 CPU와 6배속 CD롬 드라이브 및 16비트 사운드카드, 1.28GB의 대용량 HDD를 장착한 것을 비롯해 8MB의 기본메모리와 2MB의 비디오메모리, 14.4Kbps의 팩스모뎀을 갖춘 고성능 멀티PC다.

LG전자는 CPU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초고성능인 반면 3.5인치 FDD와 소프트웨어 MPEG 등 PC사용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만을 채용해 가격을 현재 국내 PC 시장에서 주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100MHz급 제품보다 낮은 수준인 239만원(모니터·부가세별도)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아주시장 집중공략

LG전자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 남동 아시아지역에 오는 2000년까지 총 7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

이 지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종합가전단지를 한국 중국에 이은 제3의 생산기지로 육성,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LG전자 서기홍 아주지역담당(상무)은 「이 지역의 주요 전략 목표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스타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를 통해 아시아시장의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30%이상 늘어난 1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LG는 이 지역 매출을 17억 달러(97년) 23억 달러, (98년)등으로 점차 확대, 오는 21000년엔 4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기로 했다.

LG는 이중 인도네시아 복합가전단지 증설에만 모두 3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 오는 2000년까지 컬러TV 연산 100만대와 냉장고 연산 30만대 생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컬러TV용 브라운관과 모니터용 브라운관 공장도 연산 600만대 생산체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PCB 사업 강화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전자미디어CU 소속의 전자부품群 중에서 LCD 및 브라운관과 함께 비교적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인쇄회로기판(PCB)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LG전자는 고다층·고밀도·초박판·특수단면 등 고부가 PCB 사업을 올해부터 집중 육성, PCB 매출규모를 지난해 1,290억원에서 올해 1,922억원, 97년 2,670억원 등 매년 40~50%에 이르는 고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와함께 오는 2000년에는 매출 4천억원대의 세계 정상급 PCB 전문업체로 올라선다는 방침아래 다층기판(MLB)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현지생산을 통한 세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LG는 이에따라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단면·양면라인은 해외이전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현재 PCB의 고밀도·박판화 추세에 대응, 회로 80~100 μ 대의 IC 핀간(2.54mm) 5~7라인그 미세회로 성형기술과 8층 기준 두께 0.4mm대의 초박판 PCB가공기술 등 첨단 PCB제조기술을 97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로터리 엔코더 국산화

오토닉스

오토닉스(대표 박환기)는 별도의 연결장치인 커플링 없이 모터나 기계의 회전축에 직접 장착할

수 있는 중공축형 로터리엔코더를 개발, 양산체제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오토닉스가 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1년여의 연구끝에 개발한 이 제품은 금속슬리트 대신 유리슬리트를 채택, 1회전당 5,000펄스의 고출력이 가능하고 금속슬리트보다 정밀도가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직경 40mm의 소형 로터리엔코더로서 협소한 장소에도 설치가 용할 뿐만 아니라 축 내경이 6~12mm로축의 굵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다.

로터리엔코더는 입력부에 주어진 기계적 변화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 회전물체의 위치·거리·각도 등의 검출에 이용되는 장치이다.

한편 오토닉스는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소형 로터리엔코더의 양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최근 국산화 장비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가상표 직수출 확대

필코전자

필코전자(대표 윤길중)는 올해를 자사상표부착 해외 직수출 「원년의 해」로 정하고 수출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필코전자가 직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는 품목은 TV·모니터 등의 노이즈방지용으로 사용되는 「X2」 콘덴서로, 지난해까지만해도 전량을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에 OEM 공급하였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필립스에 대한 공급량을 50%로 줄이고 나머지는 「PILKO(필코)」 상표를 부착, 새로운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

필코전자는 이번 자사상표부착 수출을 계기로 기존의 필립스위주 공급체계에서 탈피, 홍콩·싱가포르·일본·중국 등으로 수출선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영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내수용 제품을 전량자사 상표로 전환한 필코전자는 올해도 필립스에 대한 공급분을 제외한 모든 수출제품에 자사상표를 부착, 수출함으로써 「PILKO」의 이미지를 해외시장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미국 멀티카드 업체 「제즈」사와 전략적 제휴

한솔전자

한솔전자(대표 조동완)가 세계 멀티미디어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미국의 유력 멀티미디어 카드업체인 제즈멀티미디어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

조동완 한솔전자사장과 마이클 양 제즈멀티미디어 부사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 잠실점 에메랄드 룸에서 상호 특허 라이선스 및 제품판매를 골자로 한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갖고, 세계 멀티미디어 시장에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한솔전자는 제즈멀티미디어사로부터 비지오·동화상전문가그룹(MPEG) 및 3D 그래픽 등 멀티미디어카드 전 부문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받는 동시에 사운드·팩스모뎀 등과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제즈멀티미디어에 제공한다.

또 한솔전자는 제즈멀티미디어의 각종 멀티미디어카드의 국내 독점적인 공급권을 갖는 대신 제즈멀티미디어는 한솔전자 사운드카드 및 팩스모뎀카드의 미국내 공급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제즈멀티미디어는 올 6월경 준공 예정인 한솔전자의 충북 진천공장에서 자사 멀티미디어카드를 주문자상표 부착장식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켈컴사의 디지털 셀룰러 폰 국내 공급

한 창

한창은 미국 켈컴사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 디지털 셀룰러폰을 3월말부터 국내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창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켈컴사 본사에서 김중기사와 켈컴사의 자콥스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한창은 디지털 셀룰러폰의 경우 국내통신업체들이 CDMA의 핵심 칩을 켈컴사로부터 공급받아 생산해 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켈컴사의 완제품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한창은 켈컴사로부터 직수입하게 될 디지털셀룰러 폰의 주파수당 수용용량이 기존 아날로그방식보다 10배이상 커 통화불통 통화단절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통화음질이 깨끗한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공장 착공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2월 27일미주시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 해외투자사상 초대액수인 13억 달러를 투입, 미오리건주 유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다.

국내업체가가 해외에 반도체 일관 가공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는 이번 미주공장 건설로 향후 전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주도

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해외 생산거점 마련의 기틀을 확보하게 돼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로서의 위치를 대내외에 널리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전자 미현지법인인 HEA의 자회사로 「HSA(Hyundai Semiconductor America)」로 명명된 이 공장은 약 700명의 현지 인력을 고용, 내년 말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8인치 웨이퍼 월 3만장 규모로 64MD램을 주력 생산하게 된다.

멀티타이틀 사업 강화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멀티미디어사업 육성차원에서 PC임을 비롯한 멀티미디어타이틀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현대전자는 올해를 「멀티미디어타이틀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삼고 최근 소프트웨어연구소의 콘텐츠팀을 확대 개편해 PC게임을 비롯 교육물과 인터넷베이스로한 내용물 VOC관련 콘텐츠사업등과 관련한 제품개발 및 영업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대전자는 국내의 제작업체들을 협력업체로 확보해 타이틀제작을 들어가기로 하고 올해 10억~30억원을 투자, 게임타이틀 15종과 교육용 타이틀 3종 그리고 테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2종 등

국·내·업·계·소·식

총 20여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전자는 멀티미디어 타이틀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타이틀 제작업체들의 인수 및 제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현재 외국업

체들과 접촉중에 있는데 올 하반기 안으로 엔진분야에선 유럽업체를, 마케팅분야에선 미구 업체를 각각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대전자는 멀티미디어 타이틀의 영업을 위해서 우선 국

내 대형유통업체들을 총판업체로 확보, 영입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SBK와 패밀리프로덕션에서 「디지털 코드」의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및 회원사 인사동정

<통상산업부>

▲ 국장급 전보

중소기업 정책관 임래규
기술품질국장 박영기

▲ 과장급 전보

전자부품과장 박인구
중소기업정책총괄담당 박주태
중소기업기술지원담당 김호철
법무담당관 김재홍
무역정책과장 안길원
미주통상담당관 정태신
아주통상1담당관 이경후
산업배치과장 구본용
산업디자인과장 이일규
산업표준과장 이원섭
품질안전과장 민영우
자동차조선과장 이재훈
섬유공업과장 이병호
화학생활공업과장 김기호

<중소기업청>

▲ 국장급

기획관리관 이인수
지원총괄국장 장지중
기술국장 김경석

산업 1국장

산업 2국장

유통공업국장
부산중소기업청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대전·충남 중소기업청

▲ 과장급

비서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총무과장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조사평가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지원총괄국>

자금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국제협력과장

김광식

정기수

김일광
허범도
김윤광
김광수
김경식
고학금
신종현
박일환
김영수
김영창

전대열

이민형
서창수
허순영

송재희

박장교
양민진
홍용용

<기술국>

기술개발과장
기술지도과장
기술분석과장

<산업 1국>

기계공업과장
금속공업과장
전기전자과장

<산업 2국>

섬유공업과장
화학공업과장
생활공업과장

▲ 정책서기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법무 담당관실

<지원총괄국>

자금지원관
인력지원과
국제협력과
<기술국>
기술개발과

박병태

정영태

박지용

이선관

김시중

김현익

강성균

주대수

이용목

임기봉

최현준

이은범

최수규

김형호

송중호

국·내·업·계·소·식

기술협력과	이광재	전무이사	김수웅	이 사 보	유병인
기술지도과	이영원	상무이사	박원실	이 사 보	김영희
기술분석과	황창욱	상무이사	김기현	이 사 보	노정수
<산업 1국>		상무이사	김천세	이 사 보	이희관
기계공업과	김재덕	상무이사	최용규	이 사 보	최 혁
금속공업과	강찬기	이사대우	김광남	이 사 보	김재근
<산업 2국>		이사대우	김기태	이 사 보	조성열
생활공업과	배일영			이 사 보	홍승노
		<대한전선>			
<아남산업>		전 무	김은준	<동양전자초자>	
부 사 장	서종철	감 사	임주호	대표이사	장일성
전무이사	김규현	감 사	권영준		

회원사 변경사항

- ▶ 현대전자산업 서울 사무소 및 메모리 사업본부 이전
- 주 소 :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본관 6층
 - 전 화 : 746-8203~14(업무부)

- ▶ 텍산전자 주소 변경
- 서울 사무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
 - 본 사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186-2
 - 전 화 : 0333)665-7190

산업경쟁력의 강화는 영업비밀의 보호에서 시작됩니다